

POLITICS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전남도, 몽골과 기후·농업·문화 전방위 협력

韓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70%
교육부, OECD 교육 지표 발표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70%를 기록했다.

고졸자와 전문대졸자, 4년제 대졸자, 대학원 졸업자 등 최종 학력별 임금 격차는 지난 조사 때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를 발표했다.

OECD가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11개국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지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 성인(만 25~64세)의 대학 등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41.9%)을 훌쩍 뛰어넘은 56.2%였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49개국 중 1위였다. 2위인 캐나다(68.86%), 3위인 아일랜드(66.19%)를 제치고 유일하게 70%대를 기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놓지 않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 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전년대보다 다소 컸었다.

고졸자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109.9%,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32.5%, 대학원 졸업자 176.3%였다.

다만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는 적은 편이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17.3%, 4년제 대학 졸업자 139.5%, 대학원 졸업자 182.5%다.

2023년 한국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3명, 중학교 12.8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0.5명, 0.3명 줄었다. 초등학교는 OECD 평균(14.1명)보다 많았고, 중학교는 OECD 평균(중학교 12.9명)보다 적었다. 고등학교는 전년대 같은 10.5명으로, OECD 평균(12.7명)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2022년(초등학교 22.0명·중학교 26.0명)보다 소폭 줄었으나 OECD 평균(초등학교 20.6명·중학교 23.0명)보다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시
도성자 어르신 ‘교육부장관상’

전남도는 교육부가 주최한 ‘2025년 제14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고흥 출신 도성자(68) 어르신이 최고상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성인문해교육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성인에게 기초 학습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한 분야다. 올해 시화전은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전국에서 1만5528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는 10명이다.

도성자 어르신은 작품 ‘뽕튀기’를 통해 “뽕 뽕 튀어 나온 따뜻한 뽕튀기 마냥 고신내 나는 내 공부가 맛있다”는 표현으로 배움의 즐거움과 성취를 은유적으로 담아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전남에서는 영암 출신 김재삼(70) 어르신 등 10명이 전국 시화전에서 입상해, 도내 문해학습자들의 성취를 알렸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도전하는 학습자들의 용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문해학습자들이 배움의 기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관광설명회·‘한국주간’ 문화행사 큰 호응
유망 중소기업 15개사 수출상담회 성과도

전남도가 몽골을 처음 공식 방문해 기후·후위기 공동 대응과 농업·문화·관광·통상 협력을 아우르는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올란바토르시와 우호교류 협약을 맺고 수출 상담회와 관광설명회, 문화행사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도 거뒀다.

전남도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

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 올란바토르시와의 우호교류 협약을 비롯해 농업기술 교류, 관광홍보, 문화교류, 수출상담회 등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 올란바토르시청에서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과 아미르투브신 암갈란바타르 부시장

은 통상·산업, 농업·축산, 교육·청년교류,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남의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한 작물 재배 지원 등 농업기술 협력이 포함돼 안정적인 식량 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할 전망이다.

첫 일정으로는 몽골 산림청과 함께 기후변화·사막화 대응을 위한 ‘우호의 숲’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공동 대응의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올란바토르 현지에서는 관광자원 설명회

도 열렸다. 몽골 관광협회와 여행업계, 언론인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의 섬·갯벌 등 청정 자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미식·웰니스 관광지 등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는 현지 여행사와 협약을 맺고 몽골 관광객 5000명 유치를 목표로 특화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문화행사에서도 전남의 매력에 부각됐다. ‘2025 한국주간(Korea Week)’에 주관 지자체로 참여한 전남도는 국악단 공연과 난타, 전통공예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현지 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통상 분야에서는 전남 유망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김·미역 등 수산물과 유가농 화장품을 선보였다. 현장에서 2건의 업무협약과 5건의 계약이 성사됐고, 판매액은 3만달러에 달했다.

김 지사는 “전남과 올란바토르는 기후위기 대응을 비롯해 농업, 경제, 관광, 문화·예술 등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시아 협력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수출 확대와 글로벌 위상 강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대통령, 중앙선거위원 후보 위철환 지명
통합위원장에 이석연…대중문화교류위원회 신설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취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 김진에 전 의원을 선임했다.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여성가족부 차관에는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인,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엔 임재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지문위원이, 대도시관광역교동위원회 위원장엔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기용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3303원 확정
최저 임금보다 2983원·월 62만원 많아…전국 최고

광주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303원(월 278만327원,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29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1만2930원)보다 2.89% 인상된 시급 1만3303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 월 215만6880원)보다 시급 2983원 높은 수준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 약 62만원이 더 많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

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약 9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왔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자가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왔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공공부문을 넘어 더 많은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한부

정청래 “내란청산은 시대적 사명…계엄 사과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언론·사법 개혁 강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 청산은)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에게 12·3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면 위험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또 “(12·3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

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며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독립기념관법’ 개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도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본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방송 3법이 지난달 통과된 데 대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라며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경제협약체’는 실시간으로 정신을 기반으로 보 여주시기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생 회복과 관련해 임대료,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 출판기념 토크콘서트

27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집필한 ‘참 지방자치 행정론’ 출판 기념 토크 콘서트에 오는 27일 오후 3시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윤 전 부군수가 35년간의 공직 경험과 현장 활동, 주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집필한 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참 지방자치 행정론’에는 보성군의 농업·음식 관광·전통문화·주민복지·일자리 창출·생활연구 증대 등 지역 발전 전략이 담겼다.

특히 벌고 꼬막 산업, 주민조합형 태양광사업, 웰니스 산업, 주민기본소득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사람이 머물고, 돌아오고 싶은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행사는 축하공연과 개회식, 축하사, 축하영상 상영에 이어 저자의 활동 사진·영상 소개, 북토크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부군수는 1962년 보성군 북내면에서 태어나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동신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순천시, 화순군, 영광군, 진도군, 전남도청 등에서 3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행정 현장을 누볐다. 전남도청 재직 당시에는 렌터카 투자유치로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증대에 기여했다. 또 주민조합형 태양광사업과 주민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는 등 산재생애너지와 소득 증대 정책을 결집한 실험을 주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흥군수 도전’ 사순문 전 도의원, 조국혁신당 입당

“호남정치 새 시대 군민과 열 것”

내년 6·3 지방선거 장흥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사순문 전 전남도위원이 9일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했다.

사순문 전 도의원은 이날 장흥에서 조국혁신당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꾼다. 그 출발은 지방자치 개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줄서기 정치가 판을 치고, 무능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양산된다”며 “가득권 독점 구조를 깨뜨리고,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세우자 한다”고 강조했다.



사 전 도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경쟁으로 호남정치의 새 시대를 군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며 “정의와 평등, 국민 모두가 존엄하게 사는 나라를 꿈꾸는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가치와 희망에 온몸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떠나는 장흥이 아니라 돌아오는 장흥, 스쳐 가는 장흥이 아니라 머무는 장흥’을 내걸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